



2003년
7월 15일
제 59호

춘천성시신문

나침반

교회개신·부흥·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1998년 9월 15일 창간 발행인 임신영 http://www.holycc.org Fax.033)257-1260 Tel.033)256-1260 춘천시 효자1동 373-90 (☎200-091)

춘천지역에 부는 전도의 열풍 - 성시화를 위한 교회와 전국대학생 전도사역 -

지난 7월 4일부터 6일까지 제4회 춘천전도사역 활동이 성시화의 도시인 춘천에서 일어났다.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춘천전도 활동은 2000년 7월부터 매년 7월 초 일어나는 CCC전국 대학생 전도요원들과 각 교회의 전도

인들이 함께 협력하는 전도사역이다. 이들의 전도를 성시화 복음화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참여한 CCC대학생전도교의 소속 크리스찬 학생들은 춘천성시화 총력전도 사역을 위해 전도하기를 자란한 출

몰한 믿음의 전도요원들로서 키가를 잠시 미루고 각자 바쁜게임을 양보하면서 학생 성우리조트에 남아 수련을 마치고 갈고닦은 전도의 노하우로 춘천에서 필드사역을 시작했다. 아침 8시에 형성에서 순천으로 교회들이 지닌 한 버스로 전도자의 사명과 함께 석사감리교회에 도착하여 정오에 드리는 발대식 예배에 참가했다. 춘천기독교연합회 및 성시본부에 대표하는 교목사와 장로, 전도요원들을 인수할 교회 목회자들이 함께 예배드림 환영하였고 예배는 석사감리교회 순창목사의 인도로 시작되었고 박인관 목사(광명감리교회), 김주환 목사(순복음춘천교회), 김광국 목사(성광장로교회), 정경호 목사(춘천CCC대표), 이학규 장

로, 조충환 목사가 참석해 메시지와 대표기도, 축도, 광고와 오리엔테이션을 담당해 진행하였다. 전국대학생 전도요원들을 배치받은 개교회로 인솔하여 교회 전도자들과 함께 구체적인 전도전략을 설명하고 중점 전도대상과 지역을 안내 설명하였으며 3박4일간의 총력전도 실행에 들어갔다. 서울지역 대학생 전도요원 18명이 배치된 한 교회는 만천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침 등교시간과 귀가시간을 활용하여 중점 전도하였으며 초요일은 귀가하는 학생들에게 전도하고 학생들과 같이 집을 방문하여 부모들에게까지 전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활동하였다. 소중한 시간을 기꺼이 투자해 무더운 여름 거리에서 복음화 전하느라 고생한 청년들과 열린 마음으로 총력전도대회에 참여한 여러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의 믿음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복음전도에 우선권을 둔 교회들이 함께 예배드림 환영하였고 그들의 신앙심에 감동했으며 3일간 아낌없이 흘린땀이 결코 헛되지 않은 귀한 복음의 씨앗이 되어 줄 것이다.

2003년 춘천성시화 전도대회 결과

(24개 교회 전도자의 전국대학생 250명 참가)

교회명	교목사	전도수	연합수	가신지	관심지	반대지	성령수확지
동대감리	김주환	55	25	12	5	10	3
합의감리	유영일	101	14	9	36	38	
광명장로	조충환	49	11	12	17	8	
의암장로	윤정수	21	8	2	4	7	
간월교회	최두선	90	55	5	18	22	
삼일교회	최두선	26	3	5	12		
광진교회	노승환	32	26	7	19	3	
열린	신성근	118	58	24	11		5
성광장로	김광국	64	24	10	12	8	
순복음춘천	김주환	21	3	2	5	8	
신복장로	조두준	51	24	83	137	116	
석사감리	임태환	62	38				
광명감리	박인관	60	37	11	6	6	
중앙장로	김태열	50	21	14	16	1	
제암교회	박성철	47	16	16	9		
온누리장로	국영환	32	29	1	10	10	
서부감리	국영환	213	10	20			
신광장로	송용환	46	36	4	4	3	
강북장로	남준성	106	17	17	34	38	
오순절	김지훈	284	27	25	21		
순복음제자	이정환	61	31	3	16	4	
아름다운복음	지태규	35	17	1	14	6	2
성신장로	김동부	89	35	15	28	28	
총계	23	1756	568	284	430	328	10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조찬기도회

강원도·강원도의회 기독교교회는 지난 6월 26일 오전 7시 강원도청 신관회의실에서 2010동계올림픽 유치와 강원도청 및 도의회를 위한 연합조찬기도회를 열었다. 이날 박수복 정무부지사, 도의원들과 춘천기독교연합회장 김신영 목사(동부장로교회)의 설교로 진행되었다. 김신영 목사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알라"고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라(잠언16:3)라는 말씀과 "이후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게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 무게 하시리라"(마태복음18:19)라는 말씀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서 2010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기원과 강원도청 및 도의회를 위해 합심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후 참가한 모든 회원들이 도청 구내식당에서 조찬을 하며 서로의 화합과 친교를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사진제공: 유승근 장로
(직상교연합회 총무)



감리교회 동부연회 여름수련회 개최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신교회 동부연회 연합회(회장 심인성 장로)가 주최하는 '제19회 평신도 여름수련회'가 오는 8월 7일(목) 오후 2시부터 8월 9일(토) 오전까지 2박3일간 형성 성우리조트에서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이다. 주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사 60:1)'이며 수련회 기간 강사로 경기도 안산시 광명교회 유기준 목사를 초청했다. 동부연회 평신도여름수련회 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이호상 장로)는 감리회 300만 총력 전도운동에 맞춰 전도세미나 중심의 강사진으로 편성하고 영성훈련과 특별강좌 중심으로 신앙생활에 활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했다고 전했다. 평신도 여름수련회는 1인당 5만원의 회비와 성경, 찬송가, 필기도구, 세면도구, 간식 등 기본비용이 필요하며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선착순 등록) 각 교회의 평신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등록금: 사전등록시 1인당 4만7천원 / 당일등록시 1인당 5만원

사전등록시 입금계좌:
농협 281-12-277457 예금주-심인성
입금하신 후 전화로 통보해 주십시오.
▶문의 및 연락처: 심인성 회장 011-510-9471 / 이호상 준비위원장
018-392-0311 / 이영규 총무 016-9776-4616

강원경찰청 기독교연합회 창립

지난 6월 14일 강원도내 경찰청신도들이 모여 기독교연합회를 창립하고 초대 연합회장에 김충환 장로를 선출했다. 7월 6일 오후 7시 30분 원주 사랑장로교회에서 창립감사 예배를 드렸으며 민생안전을 위해 수교하는 경찰작을 심본 활동에 도민들에게 청렴 경찰로 다가가며, 모범적인 동료로, 직원으로 본을 보여 직장내 복음화를 한발 앞당길 것을 다짐했다.

대구경북 연합전도 부흥성회 & 홀리클럽 하계수련회

대구경북성서회총본부(회장 조준제 목사)와 대구경북홀리클럽(회장 이준근 장로)은 오는 8월 18일(월)부터 20일(수)까지 대구명동교회에서 장경동복사(대진 중문침례교회)를 강사로 모시고 대구경북 성시화를 위한 제3회 연합전

도부흥성회를 개최한다. 또 홀리클럽은 8월 28일(목) 동일교회(예장)에서 제5회 홀리클럽하계수련회를 개최 예정이며 서울사랑교회교회 전방목사를 강사로 초청한다.
(문의 TEL.(053)746-0691)

홍천만민교회 교육관봉헌 및 장로 취임예배

홍천만민교회(양명환 담임목사)는 지난 6월 11일 교육관 및 사택 봉헌예배와 장로취임 감사예배가 있었다. 이날 만민교회 성도와 동부연회 및 관내 교역자, 성도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부연회 권오정 감독(춘천중앙교회)의 인도로 봉헌예배를 드렸으며 이

어 홍천지방법 권오정 감리사(홍천교회)의 사회로 최창희, 이상순, 조봉구, 권오정 장로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예배 후 애찬을 함께 하고 홍천지방법 교역자 회의를 가졌다.【장로취임】최창희 장로 / 이상순 장로 / 조봉구 장로 / 권오정 장로

홍천만민교회 일일수련회 개최

홍천 만민교회(양명환 담임목사)는 7월 17일(목) 하초대 해수욕장에서 전교우 일일 수련회를 개최하며 19일(토)부터 21일(월)까지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오는 21일(월)부터 25일(금)까지 학생회를 대상으로 '저해·남해·탐방'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춘천 동부교회

담임목사 임인일

강원도 춘천시 조양동 117 / 교회사무실 TEL. 033-252-5969
교회 홈페이지 http://www.dohdoh.com

대한예수교장로회 늘 사랑교회

담임목사 정재호

춘천시 추계동 65-11번지 / 교회사무실 TEL. 261-8219
늘사랑교회 홈페이지 http://www.neulsaarang.com

대한예수교장로회 일신교회

담임목사 이준우

강원도 춘천시 일신동 436-8 / 교회사무실 TEL. 033-253-7223
일신교회 홈페이지 http://www.ysc1.com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순복음춘천교회

담임목사 김주환

강원도 춘천시 동면 반전리 56-1 / 교회사무실 TEL. 033-253-2741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순복음하나교회

담임목사 김길홍

춘천시 추계동 711-25번지 / 교회사무실 TEL. 033-254-9099 / 254-9098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춘천열린교회

담임목사 장철교

강원도 춘천시 일제동 436-8 / 교회사무실 TEL. 033-253-7223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춘천소양교회

담임목사 이원호

강원도 춘천시 요양동 114 / 교회사무실 TEL. 033-253-2004
교회 홈페이지 http://www.soyangchurch.com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사암교회

담임목사 최상도

춘천시 동대면 사암리 1174번지 / 교회사무실 TEL. 261-7727
사암교회 홈페이지 http://www.sam21.org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석사순복음교회

담임목사 김재병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745-7 / 교회사무실

사설

집필자와 독자간 에티켓이 필요하다

춘천지역 교회와 선교의 신앙인들의 힘으로 1998년 9월 15일부터 매일 성서신문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그때마다 독자와 집필자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 성서신문은 그 특성상 어디에서든 읽히기 힘든 신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역 기독교계의 소식, 정보, 칼럼리스트의 글과 독자들간의 인격적인 만남을 유도하는 신문이다. 지면을 통해 집필자들은 자신의 인격을 갖고 정성을 다해 완성한 한 편의 글을 통해 독자들을 알현한다. 이렇듯 신문지상의 기사와 글은 주제와 객관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어떤 집필자든지 주변 독자들의 격려 또는 찬사를 받길 원하며 제물을 기리고 싶지만 글의 수준과 독자들의 인격의 에티켓 정도에 따라서 신문에 실린 글들은 때론 가치있게 평가받지 않는 실정이다. 무가치하게 취급하는 건해 상반된 대우를 받

기도 한다. 우리 성서신문의 집필자와 독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마음을 잘 아는 한사람에 관하여 굳게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서 신문지상을 통해 독자 또는 집필자의 입장에서 만나는 성령의 사람들이다. 현란한 기교없이 서글픈 세 나라 단 한줄의 글이라도 서로에게 깊은 깨달음을 줄 수 있는데 그것은 오직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가능한 것으로 믿는다. 신문지는 일회용이지만 그 안에 실린 감동적인 글들은 독자의 마음을 지배하고 영혼이 오래간다. 앞으로 독자들은 집필자에 대한 최소한의 에티켓을 가지고, 집필자 역시 독자를 예수님 대하듯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심혈을 기울여 글을 완성하기 위해 심혈 노력해야 할 것이며 서로의 믿음과 진심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길러야 하겠다. 작은 도에서 몇몇 교회와 몇몇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묵묵한 헌신

적 봉사에 의해서 유지되고 만들어지고 있지만 엄밀히 5년여의 역사를 가진 성서신문이다. 이는 모두 허물을 덮여주듯 넓은 아량으로 부족한 신문을 응원해 주신 독자들의 높은 인격과 집필자들의 꾸준한 참여와 노력이 있어 가능해진 것이다. 비단 성서신문뿐만 아니라 아직은 부족하고 어려움이 많아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독교계 언론매체를 대할 때, 서툰을 비판하기에 앞서 기독교인답게 넉넉한 이해와 사랑으로 배려하는 마음이 절실하며 작은 시정착을 통해만이 무한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또한 성서화를 염원하는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인격이 에티켓이 아닌가 싶다. 현재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가치화시켜 평가절하한다면 그 자신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별되는 인격이나 에티켓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건강한 신앙인 육성이 우선과제이다

우리에게 신앙이란 건강한 신앙인 육성이 우선임을 부여한다. 하나님 제1주적 신앙을 지니야 할 신앙인들이 배금주의와 세속주의로 전락하고 있다. 교회의 머리요 주인 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제일주의 제물우위를 내세우려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나 부와 권력제일주의를 지닌 부자 나사로의 지옥불에 떨어졌으나 거지 나사로는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있었고 어리석은 농부는 창고를 짓고 소출로 가득 채워진 창고를 노래했다. 내 영혼을 평안하라고 그러니 내 영혼을 오물함 불러가면 가진 것이 뉘그러 되었느냐고 어리석음을 지적하였다. 자본주의적 경제사회는 물질만능 배금주의적 사고로 이끌고 있다. 깨어 지니야 하는 것때문에 동산의 예수님의 말씀따라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한 기도로 육신보다 영적인 건강을 지니야 할 것이다. 영적인

건강은 육적인 건강을 가능케 할 것이다. 현실은 건강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을 흔히 볼 수 있다. 목회자와 교회종교도 대개 예외가 될 수 없다. 1960년 미국 캔터키주 한 정신병동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하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으라고 시고하며 소리치르는 환자가 있었다. 원목에게 환자를 만나도록 했다. 그는 두 눈을 스스로 상해 하고 일원한 사람이었다. "나의 눈이 멀어졌거든 뽑아 내어 버려라" 말끝에 그대로 따른 것이었다. 믿음도 잘못되어 병이 들 수 있고 절대로 약자인데 많은 관심을 가지는 일부 신자들의 사고도 위험할 수 있다. 병든 신앙은 사람의 삶에 파괴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경고적인 사례를 보면 여학생이 새벽예배에서 일천번제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경건한 삶을 강조했다. 동료학생들은 그의 신앙심에

감탄했다. 그런 그녀가 기숙사에서 물대 담배를 피우다가 들켜 지책을 받았다. 상담결과 자신의 내면세계의 불균형을 이기지 못하면서 오는 건강장애를 위한 강박증적인 행위였음이 밝혀졌다. 일원한으로 정해진 행위를 통하여 불균형 심기를 대리만족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 이러한 신앙인들을 주위에서 찾아볼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신의 부와 직위, 명예, 사치, 성형수술 등으로 대리만족 하려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흔하게 찾아 볼 수 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갈구하려는 병약한 신앙인들이 존재한다는 건 가슴아픈 일이다. 육에 치우치는 신앙은 육과 영이 병약하고 영의 건강을 위한 삶은 영육이 건강하게 된다는 진리에 따라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란다. 깨닫고 회개하므로 영적인 건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세계선교연구원 교회경영 및 조직관리론 특강

- 계명대학 김남현 교수 초청 5층 강의실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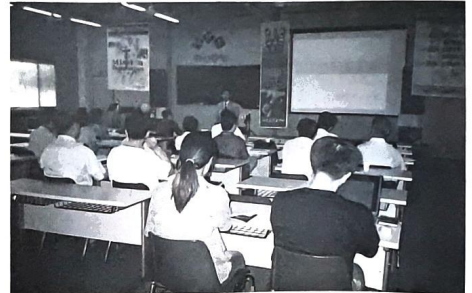


조은목 목사

세계선교연구원(원장 조은목 목사)은 7월 1일부터 5일간 매주 오후 2시에서 6시까지 춘천지역 교회 목회자와 직장기독교인을 대상으로 교회 경영 관리 및 조직관리 지도자들에 관한 특별교육 기간을 마련하였다. 금번 교육은 베드로선교센터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지역교회의 자질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는 교육으로 대구 계명대학 김남현 교수를 초청 교회의 경영관리와 지도자교육을 통해서 교회생신을 꾀하였으며

수강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유익한 교육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동 선교연구원에서는 7월 7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시간에 선교사를 비롯한 선교연구원 대학을 대상으로 한 춘선대원 출신 강사의 열강이 있었고

목회자 및 지도자들의 청강이 이어졌다. 베드로선교센터에 설치된 세계선교연구원에서는 교회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실험을 기우리고 있으며 지도자들의 질적향상에 정성을 다하고 있다.



일상의 단상

“좋은 言語란”

심상희 권사 (춘천제일교회)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는 말이 있다. 이마교 TV방송대체에서 보도됨을 볼 때면 말의 귀중함을 절감하게 된다. 유병인사들의 성공담을 들을 수가 있다. 그럴때마다 어떤 분은 자신들의 성장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을 때 어떤 분의 말 한마디가 힘이 되어서 지금 이자리까지 왔음을 말한다. 그럴때마다 은연중에 한 말들이 상대방의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다행히 상대방에 힘이 되어서 용기를 주지 않았는지를 되돌아보게 된다. 오랜시간 병실에서 지리를 보냈던 남편에게도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극도로 쇠약했을 때 도래 주시고 남편에게 천국 소망의 말씀을 많이 전해 주었다. 그럴때마다 많은 힘을 얻었다. 어느 장로님 부부께서 예전에 환자들 집에 가서 만들어 먹

다기 생사기에도 불착된 때가 있을 때 현실에서나 역사 속에서도 알 수가 있다. 나는 몇 년 전 말 한마디가 잘못 전해져 와전되어 큰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말씀처럼..... 어느때 말 한마디가 힘이 될 수도 있다. 늘 심각하게 말을 해야 했다. 여럿이 모여 허심탄회하게 건강을 주고 말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실수 할 때가 있고 상대방의 말 한마디가 연중유물(중有物)이 되어서 마음에 상처를 줄 때도 있다. 작년에 가정에 큰 어려움이 왔을 때 박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들께서 도와 주시고 남편에게 천국 소망의 말씀을 많이 전해 주었다. 그럴때마다 많은 힘을 얻었다. 어느 장로님 부부께서 예전에 환자들 집에 가서 만들어 먹

고 땀 흘려서 음식을 불을 지펴 12시간 갈려 만들어 오셔서 도와주셨을 때 눈물이 펄펄 날 정도로 감사함을 느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의 년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시편90년10절) 남은 시간을 생전부처의 사람들을 만날 때 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하나님 말씀과 좋은 말을 행해서 소망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궁극적 목표인 천국 가는 길의 도우미 역할을 해야겠다.

6.25상기 민·군 연합 구국성회

지난 6월 25일 오후 7시30분 춘천제일장로교회 성전에서 “6.25상기 민·군 연합 구국성회”가 열렸다. 춘천지역 성도들과 군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예배는 박상호 목사(제일장로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대외기도, 이규철 목사(2군단 한빛교회), 성경본독 이우식 장로(장로연합회부회장), 춘천제일장로교회 찬

양대와 2군단교회 밝은빛종창단의 특별찬양이 있었다. 신성강교회 김창수 목사와 박세기를 전했으며 국가안보와 Vision2020을 위하여(김종환 목사), 평양동계올림픽 유치와 강원도 교회연합을 위하여(김지영 목사), 춘천시 복음화를 위하여(이준일 목사) 특별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1회 원주연합성가제 성료

원주비전 강원지부(서광석 지부장)는 원주기독교연합회와 원주교차로의 후원, 원주비전 원주지부의 주최로 지난 6월 28일 오후 6시 원주대장간교회(박성환 목사)에서 제1회 원주연합성가제를 열었다. 출연단은 원주개원교회, 태장교회, 원주제일장로교회, 원주제일교회

회, 장양장로교회, 남원주침례교회, 우산장로교회, 원주성결교회였으며 원주장로성가단과 빛으로 찬양선교단이 찬조출연하였다. 원주비전 강원지부는 춘천, 홍천, 강릉, 속초 지역교회 성가대별 대상으로 매년 성가제를 개최하고 노약자와 불우이웃을 사랑하는 운동을 벌여 나가고 있다.

하나님! 오늘도 변함 없는 주님의 은혜로 새날을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침의 활기찬 건강함이 복 받은 삶임을 알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건강치 못한 이웃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말씀을 찾아 일할 때나 쉬는 때나 혼자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버리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뿐이게 하소서. 때로는 편하다 행복하다 싶을 때 한날, 지치고 곤한 때를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평화와 절서와 승리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발제: 김용배 장로의 편지로 보낸 기도문 “오늘도 기도”】

2003 백두대간 횡단기도회 성료

- 평양동계올림픽 유치위해 기도하느라 강원 -

지난 6월 25일(수) 오후 3시 원주시 치악체육관에서는 강원도 기독교 연합회가 주최하고 강원도, 원주시, 평창군, CBN춘천방송이 후원하는 백두대간 횡단기도회가 개최되었다. IOC총회에서의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를 최종 결정을 앞두고 강원도 기독교연합회와 강원도가 도내 기독교인들의 마음과 힘을 하나로 유치에 힘을 보태고자 준비한 기도회에는 무려 3만여명의 강원지역 크리스찬들이 참여했다. CBS춘천방송 고길화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찬양의 축제는 신영호, 소리원, 윤향기 목사, 이상일 밴드가 출연했고

2부에는 김진선 강원도지사, 김기열 원주시장, 권오성 도 연합회 초대회장, 이훈 강원도의회장, 김창수 도 연합회 직전회장, 권혁수 평창군수 등의 격려한 소개와 인사시간을 마련했다. 원주기독교연합회장 최명석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3부 은혜와 축복의 시간에는 박진태 목사(구로중앙장로교회)의 설교말씀이 있었으며 국가와 강원도를 위하여, 2010년 평양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평화와 남북통일을 위하여 다함께 특별기도하므로 하느님 안에서 도인이 한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기도와 영광을 체험한 기도회가 되었다.

선교회소식 · 교계단신

- ★춘천중앙성결교회(유동준 담임목사) 2003년 중고등부 여름수련회가 오는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속초성결교회에서 “Sell Yourself(그 모습 그대로)”라는 주제로 열렸다. (의비 2만원) ☎256-3537 / 3538
- ★시암성결교회(최상도 담임목사) 전교회 수련회가 7월 30일~8월 2일까지 3박4일간 열렸다. 이번 여름수련회는 해외와 전국에 있는 사단 지체들이 대거 참여해 진교, 화합할 예정이다.
- ★홍천선신교회(회장 이상순 장로)는 지난 7월 10일 오후 6시 30분 홍천을 방문한 소제 만민장로교회에서 양명관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삼반기 선신교회 헌신예배를 드렸다. 양 목사는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로운 메시지를 전했으며 모범학생 장학금 전달, 하반기 사업으로 순회헌신예배, 동산대회, 불영대회 개최 등을 논의했고 전교의 시간을 가졌다.
- ★춘천동원장로교회(정성문 담임목사)는 7월 13일에 이어 오는 20일(주일)과 27일(주일) 교회 여름성경학교를 개최한다. 또한 주일 오후 3시 강원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청장년, 남선교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베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문의: 256-8877)

춘천기드온 캠프 34차 정기총회

- 사회장에 마칠규 장로선출 -

한국 국제기드온협회 제4지구 춘천캠프 정기총회가 지난 6월 12일 오후 6시 박종만 전교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식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김태권 장로(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총회는 기드온 가이드북 순서에 따라 개회사, 개회 및 식사기도, 만찬, 사업 및 결산보고, 임원선거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새로운 임원에는 회장 마칠규 장로, 부회장 심인심 장로, 총무 최종인 장로, 재정부장 홍순환 장로, 신앙부장 이학규 장로 등이 선출되었다. 춘천기드온

캠프는 지난 1년간 24개 교회의 협력에 힘입어 6만여권의 성경을 반포하였고 20여권의 성서헌금을 납부함으로 성경반포는 전국 78개 캠프 중 최다를 기록하였으며 분야별 사업도 평균 110%의 실적을 올렸다.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된 전국대회에는 15명의 대표가 참석하였으며 김태권 직전회장이 제4지구를 대표하는 전교이사로 선임되었다. (약 16:15 너희는 온전하여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북한 어린이들과 평화적 통일을 위한 중보기도를...

추천성시화운동본부

